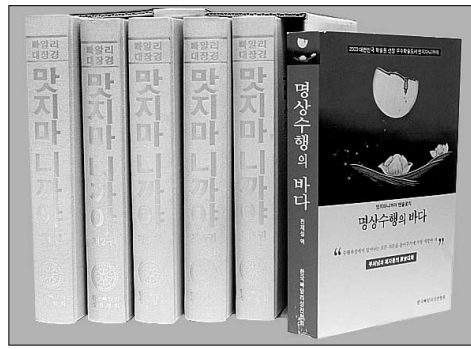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을 담고 있는 팔리어 대장경 전체를 번역하면 100여 권 정도가 됩니다. 이제 15권을 냈으니 아직 갈 길이 멀죠. 하지만 <맛지마 니까야>가 학술원의 '2003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어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에 힘을 얻어 더 열심히 번역 작업에 임할 것입니다.”



팔리어 경전 번역에 매진하고 있는 한국불교출판협회 전재성(50·사진) 회장이 지난해 <쌍둥이 니까야>(한역 집이침경, 전11권)를 번역한데 이어 최근 <맛지마 니까야>(한역 중앙잡경, 전5권)를 번역했다. 지난 1989년 번역을 시작한 이래 15년만의 결실이며, 독일의 칼 오이겐 노이만의 번역(1902년) 이후 세계 두 번째 완전독역본 번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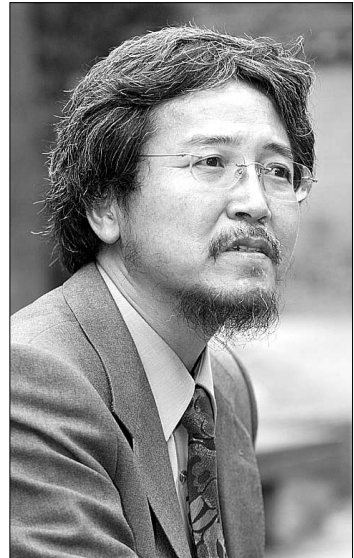
“경전을 번역하는 것은 학문적 업적을 위해서나 무조건적인 경배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또 이를 알려야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물론, 올바르게 번역할 수 있는 자질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겠죠.”

이번 <맛지마 니까야> 완간을 기념해 12월 12일 오후 2시 불교방송국 대법당에서는 완간봉정식과 함께 기념 세미나가 열린다. 특히 이번 봉정식에는 완간을 축하하기 위해, 전 박사가 <맛지마 니까야>를 번역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 독일철학자 페터 노이아르도 방한해 축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는 ‘거지성자’로 알려져 있는 페터 노이아르는 <맛지마 니까야> 머릿말에서 “<맛지마 니까야>는 인간의 삶에 대한 지고한 사유와 숭고한 고요,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커다란 지혜의 보물이다. 이 경전을 번역한 전재성 박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명상수행에서의 안과 밖의 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전 박사의 ‘철학적 입장에서 본 수행에서의 안과 밖의 문제’와 최홍준 교수(서울대 의대)의 ‘정신의학에서 본 수행에서의 안과 밖의 문제’가 발표된다. 토론자로 김정호 교수(덕성여대)와 이종표 교수(전남대) 등이 참석한다.

한편, 전 박사는 <맛지마 니까야>에서 명상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답을 담은 경전을 엄선한 <명상수행의 바다>도 함께 펴냈다. 022631-1381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팔리어대장경 평생 걸쳐 완역”

‘맛지마 니까야’ 번역 전재성 박사

기독교의 건강하고 당당한 담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흔히 <맛지마 니까야>는 50경씩 묶은 3권으로 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그는 30경씩 묶어 5권으로 펴냈다. 각 권마다 500여 개의 주석을 달다보니 분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번역과 주석 작업을 통해 한역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이중번역 과정에서 많은 오류와 잘못이 생겨났음을 통감했습니다. 교리적인 혼란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서 기인하는 셈이지요.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언어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담고 있는 팔리어 경전이야말로 부처님의 참 뜻을 알 수 있는 경전입니다.”

팔리어 경전을 번역해야 한다는 인

식과 지원이 미약했던 시절, 그에게 팔리어 경전 번역 작업은 ‘무모한 사명감’이었다. 92년에는 경전연구소의 화재로 번역 원고 일부를 소실하는 아픔도 겪었지만 어떤 시련도 그의 번역 작

업을 멈출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과 ‘당위성’ 이외에, 그가 팔리어 경전 번역에 평생을 걸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소리를 높여 이념이나 주의·주장을 펼

“모두 100여권... 이제 15권 냈으니 갈길 멀죠”

12일 봉정식, ‘명상수행의 바다’도 펴내

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진정한 혁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전파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부처님의 육성에 가장 가까운 팔리어 경전을 번역하는 일입니다.”

오로지 전 박사 혼자 번역을 했던 <쌍둥이 니까야>에서는 중요 경구에서 단어가 빠지거나 잘못 번역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이번에 그는 혼자 아니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번역본을 살펴보고 의심나는 부분이나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고쳐 나가면서 완성했다.

무아·연기법으로 현대문명 치유

‘실천불교’

신용국 지음
하늘북 / 8천5백원

“삶을 위한 불교이여야 하지 불교를 위한 삶이어서는 안됩니다. 삶이 불교를 위한 것일 때, 불교는 삶을 지배하는 또 다른 형식적 도그마가 될 뿐입니다. 삶을 위한 불교는 불교를 현실에 풀어내는 ‘실천불교’입니다.”

<실천불교>를 펴낸 신용국(43) 씨는 지속 불가능한 현대 문명을 치유하기 위해선 불교의 ‘무아’와 ‘연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죽 산 속에서 개인의 해탈을 기도하는 불교가 아니라 연기법의 세계를 열어내고, 그 연기법의 세계에서 참되게 존재하기를 실천하는 불교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은이의 이러한 논리로 현대 불교에 갈망을 느끼는 현대 불교를 ‘통불교’라는 미명 아래 불교, 힌두, 무당이 서로를 꺼안고 있는 불교’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불교를 정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견성 수행이나 혹은 연기법 수행이나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한다. 웬 해묵은 ‘돈오돈수’ ‘돈오점수’ 논쟁이나고 의미해하는 사람들에게 지은이는, 이 문제를 ‘파사현정’해야 불교가 미래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은이는 최근 불교를 ‘실현’하기 위해 귀농생태마을 도리촌(www.dorichon.com)을 준비 중이다. 공동생산 공동소유를 근간으로 하는 이 마을에서는 불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친자연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너는 금생에 사람노릇 하지 마라’

제운 스님 지음
장각 / 9천5백원

‘달마산책’

제운 스님 지음
고요아침 / 9천원

달마 선화·산문 두권의 책으로

지난해 ‘제운 달마선묵전’을 연 선묵화가 제운 스님이 달마선화와 산문들을 묶은 두 권의 책을 펴냈다.

앞서 나온 <너는 금생에 사람노릇 하지 마라>는 스님의 수행 일화들을 묶은 책으로, ‘제대로 승려 생활을 하려면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으려 하거나,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사람답게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무엇을 이루려 하면 안 된다’는 은사 스님의 말씀에서 제목을 얻었다. 열 여덟 어린 나이에 출가해 겪었던 힘든 행자생활과 강연

도 정선의 토굴에서 나무를 때며 겨울을 지내 이야기, 달마를 그리기 시작한 사연 등을 잔잔한 필체로 엮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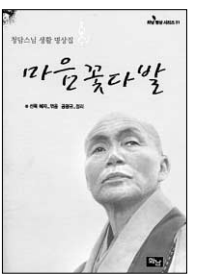
<달마 산책>에서는 옛 선사들의 경구에 스님이 직접 해제를 달고 그림 80여 장을 덧붙였다. 스님에게 글과 그림은 “그 무엇이든 달을 볼 수 있도록 가리키는 손가락”인 셈이다.

스님은 2004년 3월 3일 경인미술관에서 제2회 ‘제운 달마선묵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새로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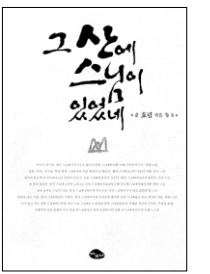
■ <마음 꽃다발> (혜자 스님 엮음, 공광기 정리, 화남, 8천8백원) = 팔만대장경 전부를 두 글자로 줄이면 ‘마음’이다. 그래서 나는 50년 가까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였다. (팔만대장경 4)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이 청담 스님의 법어를 묶은 생활 명상집 <마음 꽃다발>을 펴냈다. 마음과 지혜, 인과 등에 관한 150여 편의 글을 통해 ‘내 마음이 바로서야 온 세상이 바로 선다’는 스님의 ‘마음 철학’을 읽을 수 있다.



■ <염불, 정토에 왕생하는 길> (태원 스님 지음, 운주사, 8천원) = 당나라 도경과 선도가 8세기에 저술한 <염불경>을 태원 스님이 옮겼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염불의 중에서도 임의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칭명염불(稱名念佛)을 소개하고 있다. 염불이 왜 승한 수행법인지, 염불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 11가지의 주제를 문답으로 엮어 염불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 <그 산에 스님이 있었네> (효림 스님 지음, 바보새, 1만원) = 십여 년 전 출간됐던 <저네 도가 뭐지 아니>의 개정판. 이 시대 불교계의 큰 스승은 누구이고, 그들은 어떻게 수행하는가? 효림 스님이 쓴 이 책에서는 갖은 기행으로 ‘마지막 괴각승’이라 불렸던 혜수 스님과 타고난 순재주로 목탁이나 승복 등을 직접 만들어 쓴 아성 스님 등 30여 수행자들의 숨겨진 수행 일화를 엿볼 수 있다.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예시이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 스님	시공사
2	백해무익한 것들을 버려라	법전 스님	조계종출판사
3	가들 수 없는 영혼	필핀 가초	꿈꾸는 들
4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해봉 거사	불광
5	완벽한 참선법	우봉 스님	좋은인연
6	불자의 실패담	우룡 스님	효림
7	산중일지	현희 스님	지영사
8	염불	태원 스님	운주사
9	들숨남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립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10	부처 통곡하다	정동주 이 름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예시이문 전화: (02)737-0695

음과 마음들 함께 하는 우리 산야초차

우리 전통의 산야초차를 수백년만에 복원, 현대화하기까지의 기록 -

신비로운 치유능력 가진 산야초차!!

교보, yes24, 영풍, 인터파크 화제의 신간

내가 회색빛 감옥에 갇혀 「야생초 편지」를 썼다면 전문회씨는 산이라는 감옥(?)에 갇혀 이 글을 썼다!!

자연종자 전문회씨, 내가 자연종자 전문회씨를 알게 된 것은 그녀가 보내온 한 꾸러미의 산야초차를 통해서였다. 나의 책 「야생초 편지」를 읽고 동지를 만난 것 같은 기쁨에 보냈다는 그 차를 이것을 만든 이가 보통사람이 아님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그녀가 정성들여 만든 백초차를 우려마시면서 이것은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리산을 통째로 내 몸에 모시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번엔 전문회씨가 발로 뛰어 만들어낸 「지리산에서 보낸 산야초 이야기」는 산야초차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산야초차의 무궁무진함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전문회씨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동지 의식을 느꼈다. - 황대권 「야생초 편지」 저자

정자 사인회를 합니다.

- 장소 - 교보문고(광희문점)/시간 - 11월 29일 오후 3시
- 교보문고(강남점)/시간 - 12월 6일 오후 4시

전문의 글 | 김문호 사진 | 1304쪽 | 19,500원